

“복지 관련 부정·비리 등 제보 받습니다”
☎ 062-971-7400



복지 데스크

구례군장애인복지관, 신나는 문화나눔 체험

1박2일 거쳐 곡성·광주시·담양문화·예술 체험

기아 러브투게더 9월 문화나눔 지원사업으로 진행

구례군장애인복지관은 지난 24일 ~25일 1박 2일에 걸쳐 곡성군, 광주광역시, 담양군으로 문화, 예술체험 프로그램을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사단법인 그린라이트의 기아자동차와 KIA타이거즈 구단 임직원 및 선수들의 기부 참여를 통해 조성된 기금으로 취약계층 문화, 스포츠 관람 및 1박2일 여행 등 여가 활동 지원을 위한 “2019년 기아 러브투게더 9월 문화나눔 지원사업(이하 “9월 문화나눔”)”으로 진행되었다. 이번 “9월 문화나눔”은 장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폭넓은 사회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었고, 대상자는 지적 장애인으로 구성된 난타 프로그램팀과 가족, 자원봉사자 등 35명이 참여

하였다. 곡성군 장미공원에서 난타공연을 시작으로 광주광역시 국립박물관, 기아타이거즈 야구경기 관람, 담양군 천연염색체험, 주녹원, 관방제림 관광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곡성장미공원에서의 난타 공연은 그동안 같고 닮은 실력을 아낌없이 선보이며 음악으로 장애를 극복한 감동과 희망의 메시지를 담아 지원받기만 하던 복지서비스를 사회에 환원하는 보람 있는 공연이 되었다. 또한, 평소 비용과 정보부족으로 나들이가 어려운 장애인과 가족이 함께 하는 여행의 기회를 제공하여 일상 생활의 스트레스도 해소하는 힐링의 기회와 1박 2일 여행을 통해 이용자



간 특별한 시간으로 친목을 도모하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였다. 김형욱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들도 사회공헌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계기가 많다. 앞으로도 장애인의 정서 함양은 물론, 더불어 사는 사회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형욱 주민복지과장은 “장애인 난타팀의 실력을 뽐낼 수 있는 좋은 기회로 다양한 문화체험을 통해 힐링 여행이 되길 바라며 장애인복지관에 대한 꾸준한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전했다.

구례=박진호 기자



광주시교육청, 교육기관 정부 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 우수상
튼튼카드로 특수아동 치료지원 지원

광주시교육청(교육감 장휘국)은 26일 정부세종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19년 교육기관 정부혁신 우수사례 경진대회’에서 ‘광주 튼튼카드’로 우수상을 수상했다. 이번 대회는 정부혁신 추진 2년차를 맞아 교육기관의 혁신 우수사례를 발굴, 확산하고자 교육부 주관으로 개최되었으며, 전국 시도교육청과 국립대학교에서 제출한 44개 혁신과제 중 1차 서면심사를 통과한 10개 우수사례가 경합을 받았다. 이번 경연은 각 사례별 자유형식 발표 후 전문 심사단의 평가 점수와 현장 참관인의 실시간 모바일 선호도 투표 순위 점수를 반영해 최종 선정하였다.

이번 경연은 각 사례별 자유형식 발표 후 전문 심사단의 평가 점수와 현장 참관인의 실시간 모바일 선호도 투표 순위 점수를 반영해 최종 선정하였다. ‘치료지원 튼튼카드’는 특수교육 대상학생들이 지역사회 치료지원 기관들의 치료지원 서비스를 이용할 때 시교육청으로부터 발급받은 전용카드를 사용하게 함으로써 기관 이용의 편의성과 학교의 업무 경감을 획기적으로 높인 제도로 학부모 및 교직원들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는 점이 좋은 평가를 받았다. ‘치료지원 튼튼카드’는 이번 대회 결과 최종 우수작으로 선정된 4개 사례와 함께 오는 11월에 개최되는 2019 범정부 ‘정부혁신 경진대회’에 교육분야 우수사례로 출품될 예정이다. 장휘국 교육감은 “앞으로도 학생, 학부모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혁신 사례를 계속해서 발굴하는 한편, 장애아동들이 질 높은 교육지원을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정책들을 지속적으로 개발하도록 노력해 나가겠다.” 고 밝혔다.

조인호 기자

곡성군, 장애인 공감과 치유
탐방 프로그램 참여자 만족

곡성군이 지난 24일부터 2박 3일간 ‘2019년 장애인 공감과 치유탐방 프로그램’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은 평소 여행 사각지대에 있는 장애인들에게 여가활동 및 문화체험을 통해 몸과 마음을 치유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실시됐다. 장애인과 그 가족, 인솔자, 자원봉사자 등 참여자 56명은 동해안의 유명 명소 등을 둘러보며 다양한 문화와 먹거리를 체험하는 뜻깊은 시간을 보냈다. 행사에 참여한 A씨는 “경제적 문제와 신체적 장애로 인해 쉽게 여행을 가지 못했는데 모처럼 먼 곳으로 여행할 수 있었다.”며 프로그램에 만족해했다. 곡성군은 장애인들의 삶의 질을 높이고, 사회참여의 폭을 확대함으로써 신체적 장애가 삶의 장애가 되지 않도록 다양한 사업을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민주당 전남도당 장애인위원회 출범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 및 권리보장·총선 승리 결의



더불어민주당 전남도당은 28일 영암 삼호종합문화체육센터 대공연장에서 도당 장애인위원회(위원장 이재한) 출범식을 갖고 장애인의 정치참여 확대와 총선 승리에 앞장설 것

을 결의했다. 출범식에는 서삼석 도당위원장(영암·무안·신안 국회의원), 문상필 전국장애인위원장, 이용재 도의회 의장, 김승남 고흥·보성·장흥·강진지역위원장, 전동평 영암군수, 조정기 영암군의회 의장을 비롯한 내외 귀빈과 장애인 당원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박광은·설 훈·남인순 최고위원과 김영록 도지사는 행사에 참석하지

못한 대신 영상축사를 통해 장애인위원회 출범을 축하했다. 서삼석 도당위원장은 환영사를 통해 “오늘 출범식을 계기로 전남도당이 앞장서서 장애인의 정치참여와 지위향상, 권리보장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장애인 당원의 왕성한 활동으로 총선 승리와 더불어 함께 하는 대한민국을 만들어나가자”고 당부했다. 이재한 도당 장애인위원장은 대회사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구분이 사라지고 모두가 차별 없이 평등하게 살 수 있도록 장애인의 정치참여가 더 활성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각 지역 장애인위원회를 총선승리를 위해 똘똘 뭉쳐 뛰자”고 요청했다. 한편 이날 출범식에서는 김현수(순천), 주낙일(광양), 천기선(화순), 여운복(담양), 유종욱(고흥), 윤정임(장흥), 조만제(보성), 김종준(신안), 백남진(완도) 당원 등 9명이 장애인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임명됐다.

야호센터
인문-예술-사회참여로
청소년-지역주민과 함께합니다.

야호의 꿈

- 청소년이 지금 행복한 삶
- 청소년이 사유하는 삶
- 청소년이 예술을 향유하는 삶
- 청소년이 마을을 사랑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세계시민이 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삶을 위한 공부를 하는 삶
- 마을 주민들이 스스로, 더불어 살아가는 삶

야호는 청소년의 외침이다.

Drawing 이호동

062-960-6980
광산구 사암로 340번안길 5